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목마른 사람 성경: 요한복음 7장 37-39절

Tag:

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7:37-39)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이 있다. 무슨 일이든 닥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있다.

사람은 항상 목이 마르게 되어 있으니, 항상 생수병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의미가 있다.

닥친 다음에 깨닫는 것이 보통 인생. 누가 세심하게 다 챙겨주나. 잔소리로 알지. 잔소리에 둔감한 사람은 고생해보고 깨닫게 된다. 잔소리를 귀담아 듣는 자가 지혜롭고 세월을 아끼는 자. 두 번 세 번 되뇌이지 않는 자는 하루 지나 잊어버린다. 잔소리 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영적 민감도는 생활 잔소리에 대한 이야기.

주변에 잔소리가 많다는 말은 아직 내가 어떤 주의해야 할 일을 여전히 하고 있지 않다는 뜻.

영적 민감도를 높이자. 잔소리가 없어지면서 위기는 점점 높아지는 것이 인생.

어떤 상황이 오면 내 속에서 잔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하시는 말씀. 빨리 잔소리를 깊이 묵상하고 해결책을 찾으라!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 마치 물을 찾아 분주한 모습과 같아서 ‘목마른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목마른 갈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라는 말씀의 뜻은 어떤 사람은 목마른 갈증이 없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목마른 사람 누구든지’이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데도 ‘마시라’고 하신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라’는 뜻이다.(예수님의 잔소리를 들으라. 잔소리;내가 들을 때 귀 찡고 짜증이 나려는 내용일 때 잔소리. 사실은 **중요한 메세지**)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갈증을 해소하듯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만** 생수를 맛있게 들이킨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 받아들이라는 뜻.

그 날은 초막절 마지막날로, 사람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들어붓는 행사가 진행중이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다.

초막절은 역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살도록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지킨다. 하늘을 향하도록, 별들이 보이도록 치장했다고 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바라기.

초막절에는 또한 한해동안 성경을 일독을 하면서 마지막 장을 읽고 새롭게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는 날로 삼았다. 토라의 마지막 부분을 읽는 자를 하탄 토라(토라의 신랑)라 불렀고, 토라의 새로운 부분을 읽는 자를 하탄 브레쉬트(창세기 신부)라 불렀고, 이 행사는 토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의미가 있다.

초막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생활을 잊지 않았으며,

깨진 바위와 생수가 터진 사건을 잊지 않았으며, 성경을 읽는 것을 기념하였다.

예수님은 이런 초막절에 목마른 사람들을 초청하신 것이다.

‘목마른’ 경험은 영적인 갈망을 뜻한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 예수님께 대한 갈망, 성령님께 대한 갈망을 뜻한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다. 오늘 나에게 구원을 주소서. 오늘 나를 구해 주소서. 나의 생활을 구원해 주소서.

광야 생활 자체가 물이 없는 생활이었다. 인간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은 준비성이 철저해서 항상 생수를 지니고 다니면서 급하게 우물을 파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함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다. 살다 보면 벽에 부딪혀서 한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순간이 있(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이 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느낀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때가 온다. 그때 우리는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

김진홍목사는 고등학교때 가출해서 1년 6개월을 방랑했다고 한다.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했겠는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김진홍 학생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내가 공부해야 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책을 사도록 돈을 마련해 달라고 어머니에게 부탁했고, 어머니는 책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루종일 돌아다니다 결국 자신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 책값을 마련했다. 김진홍 학생은 그 돈으로 책을 사서 일곱 번 완독을 하고 대학에 들어갔다고 한다.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는가?

우리는 이런 특별한 목마름이 필요하다. 결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한국대표가 유엔에 가서 남한만이라도 합법정부로 인정해 달라고 할 때 러시아 대표와, 폴란드 대표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필리버스터를 했다고 한다. 마지막 날 전날 한국대표들은 철

야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한다. 다음날 러시아 대표가 목에 문제가 생겨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했고, 폴란드 대표는 러시아 대표가 앞으로 몇시간 연설할 것이 틀림없고, 자신은 그 다음번 주자라고 여겨 밖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다가 연설할 때를 놓치게 되어서 한국정부가 한국의 정식정부로 인정되었다고 한다.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삶의 고비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 순간 한 순간 지나가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해서 겨우 겨우 학부와 신대원을 마쳤던 기억이 난다. 하나님은 뭔가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다리신다. 그리고 그들을 돕고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 속에 파고들어오시는 분이시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목마름을 느끼는 자를 찾으신다. 목마름을 느낀다고 모두 예수님을 찾지는 않는다. 세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들도 많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 하신다.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값없이 마셔라.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55:1)

-돈 없이 사먹으라. 값은 있는데 돈으로 값을 치루는 것이 아니다. 가치는 있지만, 사러오는 자들에게 값 없이 판다. 돈도 없이 샀지만, 값없이 사왔다.

- 마치 이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그림을 주겠소.
- Longest.Ride.2015. 보잘 것 없는 그림이지만, 이 그림의 의미를 안다면 내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소이다. 누군가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세심하지 않으면 불가능.
-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임한다. 그래야 진짜 부모 자녀.

러나오리라 하시니

- 예수님이 한 말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함.
-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이지만, 예수님이 곧 진리. 곧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진리. 맥락사회인 한국인이 예수님을 잘 믿음.
- 기적은 과학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됨.
- 금수저는 과학이 아니라 관계임. 이것을 이해해야함.

〈찬양예배〉

제목 : 회복의 여정 상황변화에 대한 자각

성경: 왕하 8:1-6

Tag:

1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 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칠 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2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칠 년을 우거하다가

3 칠 년이 다하매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4 그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5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6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 주라 하였더라 (왕하8:1-6)

수념여인의 여정

1. 소심하지만 주도면밀한 여인. 사연이 많은 여인. 아들이 없는 여인. 그러나 남편은 나이가 늙었음.

-돈 많은 남편인데, 아내는 젊고, 아내는 아이가 없음.

-아내는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실하게 살아감. 아무런 소망

이 없는 것처럼 살아감.

-엘리사가 아들 문제를 꺼내자 여인은 아니라도 결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함.

-모종이 저주가 감지됨. 여인 스스로가 이런 생에 대해 체념? 다행? 단순함에 대한 만족? 언감생심? 의 마음이 있어보임.

-그러나 수넬여인의 주밀함과 엘리사에 대한 공경심 때문에 엘리사는 은총을 베풀.

체념했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수넬여인의 삶의 DNA가 바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집중되는 삶.

-세심한 보살핌. 매사에 세심함과 집중, 지속적 관심, 차분한 접근이 중요함.

-세심한 보살핌만이 이를 수 있는 완성이(회복) 있다.

-세심함의 기한과 세심함의 정도, 방향, 등이 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되다 만다.

-시간문제 아님. 정확의 문제임.

2. 일사병으로 죽은 아들을 살린 엘리사 (급박함2 > 치밀함1)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나요. 왜 주시고 다시 데려 가시나요.

-이 여인의 일련의 행동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외에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올인한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현실적인 투쟁.

-시간이 없다.

-다른 사람 필요없다. 거추장스럽다.

-계하시야 네가 빨리 달려가 보라.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

-수넬여인은 엘리사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말로 잘 표현치는 못하는 성격. 가슴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함.

- 남편에게도, 엘리사에게도 적절하게 말로 표현못함.
- 그녀는 오직 적절한 행동과. 댄스 하면 잘 할 것임. 판토마임이나.
- 체스처에 능한 여인.
- 뭔가 감이 옴. 심각하다는 느낌. 여인에게 절망적인 느낌.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느낌. 뭔가 다시 발동된 저주의 느낌.
- 시간을 다루는 느낌.

3. 잃어버린 재산을 찾는 수넴여인. (홀로서기->함께서기)

- 흉년을 피해 7년간 블레셋에서 지냄.
- 그 전이든지, 블레셋 거주 기간이든지 남편은 죽음.
- 이 여인이 아들을 앞세워 여호람 왕에게 신문고를 넣으려고 함.
- 당시 왕이 게하시와 더불어 엘리사의 기적에 대해 묻기 시작함.
-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이야기를 할 때 마침 수넴여인이 왕께 민원을 넣으려고 와서, 게하시가 그녀를 왕에게 소개하고 왕은 문제를 해결해 줌.
- 섭리의 문제. 어떻게 세상이 나를 위해 마련되나?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여 주나?
- 하나님께서 짜 맞추시는 느낌.
- 남편은 나이들어 죽었거나, 블레셋에서 죽었거나.
- 재산을 정리하고 7년 후에 되찾기로 했으나, 남편은 죽었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은 넘어간 상태.
- 아니면 전 부인이나 남편의 형제에게 재산이 넘어간 상태.
- 여인 스스로 직접 왕에게 나아감.
- 뭔가 이제는 성직자에게 의지하던 과거와는 달리 한 아이를 책임지는 책임감과 독자성과 용감함과 지혜가 넘치는 여인이 되어 돌아옴.
- 시민이 되어 돌아옴.
- 의존적이지 않고 능동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나름대로의 로드맵이 있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받고, 용기를 내고, 도움을 요청하고 앞으로 나아감.

-그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심.